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8년 7월 29일(주일) 제1207호

##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하용조 목사 추모기간'**  
추모기간 새벽기도회 하용조 목사 생전 설교영상 상영  
추모예배 8월 1일 서빙고 본당,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

오는 8월 2일(목)은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다.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를 기리기 위하여 내일(3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정하고 하용조 목사의 비전과 업적을 되새기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10개 온누리교회 새벽예배에서는 하용조 목사가 2008년 '사랑의 교향곡'을 주제로 설교한 영상이 상영된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 새벽예배는 1부 5시 20분, 2부 6시 30분, 나머지 캠퍼스는 자체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본당에서 드린다.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 추모예배는 8월 1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에서 드린다. 하용조 목사를 추모하고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추모예배를 드린다. 이재훈 담임목사가 사회를 보고, 손한기 장로가 대표기

도, 김영련 목사(산호세 온누리교회)가 설교한다. 이날 수요일예배는 하용조 목사 소천 7주기 추모예배로 대체한다.

8월 2일 오전 10시 30분 Acts29비전빌리지 하용조 목사 기념관과 하용조목사 기념채플에서는 유가족 중심으로 추모예배를 드린다.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가 사회를 보고, 정파종 장로가 대표기도,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목사)가 설교한다.

하용조 목사는 지난 2011년 8월 2일 향년 65세를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한 평생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를 꿈꾸며 헌신한 하 목사는 CGNTV와 두란노서원 설립, 러브소나타 개최, 90여 권(<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감사의 저녁>, <목숨을 건 일본사랑 러브소나타> 등)의 저서를 남겼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평안하십니까?

무더운 날씨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목사님의 추모식인 8월 2일엔 비라도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 봅니다. 하나님께는 하 목사님과 의논하지 말아달라는 기도를 하였지요.

하 목사님은 “한번 심각하게 기도한 문제는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충고하곤 하셨는데, 저에게는 받아드리기에 벅찬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셔도 여러 번 문을 두드리는 기도를 말씀하곤 하셨잖아요. 내가 같은 기도를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을 자꾸 귀찮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믿고 기다려야지”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 기다릴 줄 몰랐었습니다. ‘그렇게 잘 기다리다가 가셨구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분의 가심은 정말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이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이곳의 생활은 단조롭고 평화롭습니다. 비록 사막에 있는 작은 판자집을 하나 세 내어서 살고 있지만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이 저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삶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안정을 찾아보기도 하고 쉬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도 고위험군에 속하는 고령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하여 하루 종일 모니터링을 해야 하며, 약과 운동으로 제 자신을 도와주고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에 많은 시간이 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대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울하거나 새침하게 사는 것은 아니예요. 사막에서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약 40명의 성도님들이 출석하는 작은 교회이지만, 목사님 말씀도 깊이 감동이 되고, 성도들도 다정해서 주일날이 되면 예쁘게 옷을 입고 예배드리러 갑니다. 물론 제 과거를 아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사막의 인디언 마을로 전도를 하러 다녀 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우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집중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하비 사막에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리라 믿어요. 대화 시간을 정해 놓고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잠이 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계획은 두 달에 한 번씩 성경 한 권을 모두 읽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벌써 3권을 읽었네요. 그러니까 즉 성경을 떼는 것이 제 직업이 된 것이지요.

자꾸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까 말씀이 편해졌어요. 어디 가서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오면 말씀들이 쉽게 생각이 나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체인처럼 떠오르는 대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만하면 되지요. 아주 편하고 쉬워졌어요.

우리 성직자와 성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서 2시간 정도 떨어져서 살고 있어요. 한두 달에 한 번쯤은 서로 만나요. 손녀딸 유진씨도 이제 9월이 오면 벌써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우리 예쁜 며느리는 아주 훌륭한 주부로서 남편과 딸을 위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구요, 우리 사위도 신학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 성직자와 성지의 가정과 유진이를 보셨으면 너무 행복해 하셨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도 주님의 평화와 행복이 깃들기를 기도할게요. 8월초에 뵈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 이형기 드림

온 누리에서 만난 온누리

# “나눌수록 커지는 게 은혜잖아요”

## 개척교회들의 모델 꿈꾸는 예수그린교회 ‘나계수 목사’

“7년 된 성도는 떠나라”는 말에 온누리교회를 떠난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다.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경험한 노하우와 선교정신이 사역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만한 자산이 없다며 온누리교회에 무척 고마워하고 있다. 본지에서는 온누리교회에서 배우고 익힌 노하우와 선교정신을 바탕으로 열방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일곱 번째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예수그린교회를 섬기고 있는 나계수 목사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경기도 기흥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나계수 목사.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모델이 되는 교회나 목회자가 꼭 있다. 초대교회나 바울이 그 모델이 되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 같은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이 모델이 되기도 한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외각에 위치한 예수그린교회 나계수 목사의 모델은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다. 올해로 개척 7년차인 예수그린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고 있다. 나계수 목사는 대학생 시절 온누리교회를 다니며 목회자의 소명을 깨달았고, 온누리교회 차세대 교역자로 섬기면서 목회 비전을 세웠다.

“워낙 오래전이라 저를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1993년부터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학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소년부 교사로 섬겼는데 그때 정말 큰 도전을 받았어요.”

많은 교회를 다녀봤지만 온누리교회 같은 교회는 처음이었다. 신선하고 새로운 게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무엇보다 선교에 열정적으로 헌신한 성도들을 보고 크게 놀랐다.

“당시 제가 진로에 대해 한창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한 성도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이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인생의 도전을 받았어요.”

나 목사와 같은 소년부 교사였던 성도들 중에도 선교에 헌신한 동역자들이 많았다. 누가 봐도 좋은 학벌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순종했다. 그 즈음 대학 선배였던 이재훈 담임목사와 윤길중 목사로부터 제자양육을 받으면서 목회자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장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학사장교로 군복무를 마칠 무렵 온누리교회에서 나계수 목사를 찾아왔다.

“사역자가 필요하다며 차세대를 함께 섬겨달라고 했어요. 어찌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차세대 꿈이더라는 땅 영역 파트전도사로 섬겼는데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는 경험할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그때 그 경험이 지금의 예수그린교회를 존재하게 했죠.”

어느 날, 하용조 목사가 모든 목회자들에게 개인 목회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모든 목회자들이 1주일 동안 기도하고 목회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했다. 나계수 목사도 고심하면서 목회계획서를 작성했다. 연도별로 나눠서 세세한 계획을 세웠는데 핵심은 역시 ‘선교’였다.

“1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내린 결론이 선교였어요. 온누리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교회 전체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파송하는 비전을 그때 세웠어요.”

### 선교 정신으로 세운 바로 그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교를 경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교단체를 5년 동안 섬기고 홍콩에서 3년 동안 선교를 했다. 한국에 돌아와 지역교회에서 부목회자 생활을 한 다음 2010년 7월 예수그린교회 개척예배를 드렸다.

“한 가정과 함께 상가 건물에서 첫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도 없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선교사 세 가정을 후원하기로 했어요. 선교하다가 교회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선교 후원금을 꼬박꼬박 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새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그린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에게도 늘 선교를 강조했다.

“우리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무조건 선교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하고, 온누리교회 제자양육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선교정신으로 무장한 성도님들로 양육했어요.”

예수그린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성장했다. 젊은 목회자가 강조하는 선교적 목회에 많은 성도들이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다. 교회가 성장하는 동안 고충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교회개척 초기에는 사례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예산을 하긴 했어요. 당시 자녀들이 어려서 돈이 많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힘들었어요. 큰딸이 ‘아빠 직장 다니면 안 되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우연한 기회에 분당 우리교회에서 실시하는 미자립교회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됐다. 분당 우리교회에서 매달 적지 않은 사례비를 지원해줬다. 숨통이 조금 트였다. 그때 받은 후원금이 예수그린교회 부지를 매입하는 시드머니가 됐다. 그 와중에도 사례를 못 받는 개척

교회 목회자들의 고충을 알기 때문에 교회개척 2년 차부터는 교회 창립기념 주일에 헌금을 모아 미자립교회 후원을 시작했고, 지금은 4곳을 후원하고 있다.

### 온누리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개척 7주년을 맞이한 올해 1월 예수그린교회 입당예배를 드렸다.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3층짜리 교회를 건축해서 이전했다. 벌써 증축을 생각할 정도로 성도가 늘었다. 성인 성도와 차세대 성도까지 합치면 14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 예수그린교회 성도들은 지금 여름 아웃리치 준비를 하느라 들떠있다.

“생각지도 못 할 만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했어요. 지금은 질적 성장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양육 프로그램 중에 빠질 수 없는 게 일대일 제자양육과 큐티예요. 온누리교회 일대일 제자양육, 큐티, 가정사역팀과 함께 세미나를 열어서 기반을 탄탄히 세울 거예요. 늘 도움주시는 온누리교회 이재훈 담임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이전하면서 주변 주택가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섬기는 비전도 생겼다. 이 지역에는 도시에 비해 학원이 부족한데 평일에 교회를 학원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모든 차세대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싶어요. 친구들은 학원에 다니는데 혼자 학원에 못 다니면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어요? 성도님들이 교사로 재능기부를 할 수도 있고요.”

예수그린교회는 교계에서 모범적인 개척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개척 목회를 준비하거나 개척 목회를 하고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나계수 목사를 찾아온다. 나 목사는 사소할 것 같은 주보제작부터 교회 인테리어 등 교회 운영 전반에 걸친 노하우를 아낌없이 나눠주고 있다. 그가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것처럼 말이다.

“온누리교회와 하용조 목사님이 제 목회의 모델이 되어준 것처럼 개척교회들의 모델이 되는 꿈을 꾸고 있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 주일강단



노치형 목사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의 책임이다. 성경은 모든 인류의 구원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뤄집니다. ‘섭리(攝理)’를 한자어로 풀어보면, 다스릴 섭(攝)과 다스릴 리(理)입니다. 다시 말해 섭리는 ‘다스리고 다스린다’는 뜻이며, ‘더욱 세심하고 세밀하게 다스리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세심하고 세밀한 다스리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심하고 세밀하게 접근하시고 다스리시며’ 뜻을 이뤄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이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작지 않습니다. 나 한 명의 구원, 몇몇 사람들을 구원함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온 인류를 위한 구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고 알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의 말씀 속에 나타난 ‘유다인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더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한 영혼의 구원을 기뻐하시며 간절히 사모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유다 사람들을 향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한 가지 전제가 들어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뤄지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창조사역’과 유사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셨으며, 창조 과정 속에 세밀한 계획과 구상을 두고 이루어가시며, 결국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세심하게 이끌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거대한 시작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을 통해 낮과 밤을 구분하시며 시간의 영역을 창조하신 후에 공간의 영역에 해당하는 하늘과 땅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공간과 시간의 영역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나누어 광명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땅 위에 종류별로 식물들을 창조하십니다. 그 후에 생명이 있는 생물을 물과 하늘과 땅에 창조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사람을 창조하시기까지의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은 세밀한 계획과 구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습니다(창 1:26). 다시 말해 하

# 유다인의 구원과 하나님의 섭리

에스더 8장 1~10절

“하나님은 구원의 큰 그림 속에서 세밀한 계획과 구상을 이뤄 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나눔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친히 본(本)이 되 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창조의 절정은 친히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장면’입니다(창 2:7b). 하나님이 ‘생명’이라는 완성된 것을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고, 영도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조된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창 1:28). 창조하신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매우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제외된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제외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

하나님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한 큰 그림(Big Picture)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그림이며, 축소해서 말하자면 다윗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입니다. 유다 민족, 남유다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지키시겠다는 약속과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겠다는 약속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이 상황에서 고레스 때부터 포로 귀환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있음을 직접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다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제가 청년 때 가장 감명 깊게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주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입니다. 그 찬양을 들으면 언제나 큰 감동이 밀려옵니다. 나도 나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주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처럼 구원의 큰 그림을 가지고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으로 이어가십니다. 예루

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을 세우는 백성들에게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또 남은 자들을 위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세밀함 속에 있습니다.

## 하나님의 구원의 세밀한 계획

하나님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한 세밀한 계획과 구상을 이루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에스더서를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편의 대하드라마를 이끌어 가듯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특히 ‘복선 구상’이라는 차원에서 에스더서를 보면 더욱 흥미진진합니다. ‘잔치’라는 복선이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첫 잔치는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게 되는 잔치입니다.

하지만 에스더가 왕에게 베푸는 잔치는 유다인의 회복을 가져오는 잔치입니다. 에스더의 잔치는 민족이 기뻐하며 승리하는 잔치로 이어집니다. 또한 ‘왕후’라는 단어도 복선이 됩니다. 첫 번째 왕후는 왕에게 분노를 가져다 준 역할을 하지만, 두 번째 왕후는 왕에게 사랑을 전해줌으로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왕후는 자기도 지키지 못했지만 두 번째 왕후는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을 살려내고, 왕을 바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문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지기는 문을 지키는 하찮은 직업일 수도 있는데, 모르드개라는 사람이 그것을 맡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문지기라는 역할이 없었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책으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고, 유다인의 구원도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무’ 또한 그렇습니다. 하만이 세운 나무는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비극이 됩니다.

에스더서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죄인이 나무에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죄가 없는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에 달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장 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가졌던 인장 반지를 하만이 가졌을 때와 모르드개가 가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인장 반지가 찍혔던 왕의 칙서도 복선이 되어 유다인의 멸망으로 사용되었지만 후에는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쓰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세밀한 계획과 구상들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되는데 아무리 멋진 드라마 극본이 있다고 해도 그 연기를 감당할 사람이 빠지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한 역 한 역을 감당하는 캐릭터를 이끌어 내시

고 사용하십니다.

## 하나님의 구원의 세심한 동역

하나님은 유다인의 구원을 위해 사람들의 참여를 세심하게 이끌어 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배역을 맡겨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시거나 억지로 맡겨진 배역을 소화하도록 몰아붙이지 않으십니다. 그 배역에 맞는 모습이 쏟아져 나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어로 왕이 그렸고, 와스디가 그렸고, 하만이 그렸고, 모르드개가 그렸고, 에스더가 그렸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어로 왕을 통한 유다인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왕이 신뢰했던 하만은 왕에게 음모를 꾸미고 다가가 왕으로 하여금 무자비한 결정을 칙서로 반포하게 했지만, 에스더 왕후는 왕에게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가 왕으로 하여금 바른 정치의 길로 돌아오게 만들며, 생명을 살리고 화평케 하는 칙서를 반포하게 인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계획이 왕에게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에스더가 부여받았던 진실한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유다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더의 역할을 보며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이 땅에 이루어 가야 함을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만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소통되어야 교회도 새 힘을 얻게 되고,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로서의 역할, 곧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진실한 사랑만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유다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세밀하게 계획하고 구상해 놓으셨으며, 우리 주변의 캐릭터들의 역동 속에 나를 동참시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시때때로 누리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 구원의 대단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왕 됨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복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심하게 다스리시는 섭리를 통해 유대인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온누리 호스피스에서 온 편지

# 이혼한 남편을 호스피스 병상에서 만났다

## 민경애 권사와 노복식 성도의 그 아름다운 이별

15년 전 이혼한 남편을 호스피스 병상에서 만났다. 민경애 권사(양재공동체)는 죽음을 세 달 앞둔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끝까지 복음을 전했다. 처음에는 욕을 하고 밀어내던 남편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했다. 온 가족이 천국에서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남편과 이별했다. 온누리 호스피스를 섬기고 있는 김정숙 목사(삼성 서울병원 원목)가 민경애 권사와 노복식 성도의 그 아름다운 이별 이야기를 글로 적어 보내왔다. / 편집자 주



김정숙 목사  
(삼성 서울병원 원목)

성도(聖道)라는 칭호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칠십 평생 교회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모하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이다.

15년 동안 이어진 아내의 기도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다. 기적이란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줄을 붙잡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죽음에서 생명의 삶으로 인도된다.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그 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은총을 받는다.

죽음을 며칠 앞두면 변화무쌍한 감정이 드러난다. 그 속에서 전능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죽음을 앞둔 한 영혼이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긴 하나님 나라에 입문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한다.

### 이혼한 남편을 돌본 이유 '복음'

삼성 서울병원을 섬기고 있는 온누리 호스피스 봉사자 민경애 권사님의 전도 열정은 남다르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언변이 수려하지는 않다. 때로는 버벅거리고, 말솜씨가 별로여서 처음 만나는 사람은 권사님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한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만나면 권사님의 삶에 감동을 받는다. 그래서 민 권사님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뢰하게 되면 그제야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신다. 임종예배를 함께 드리며 장례까지 돌보고 나면 남은 가족들도 거의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된다.

민 권사님은 그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남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 이웃 봉사자들은 민 권사님의 남편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거의 알지 못했다. 민 권사님은 15년 전에 남편과 이혼하고 자녀들과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도 9년 전 민 권사님이 삼성 서울병원 봉사자로 합류했을 때 가정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몇 년이 지나 남편과 헤어져 따로 살지만 간혹 반찬을 챙겨다 드린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한 적은 있었다. 뒤에 알게 된 것은 남편의 성격이 유난히 예민하고 완벽주의에



노복식 성도가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

다가 모든 분야에 박식하고 분명한 분이셨단다. 민 권사님은 그와 정반대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좋은 성품이다. 남편과 성격이 도저히 맞춰지지 않아서 합의하에 따로 살기로 했단다.

시간이 흘러 남편이 폐암 말기가 되었다. 민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면 남편을 천국으로 인도할까 생각하며 병문안을 갔다.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을 보고 간병인으로 남편 옆자리를 지켰다.

지난 15년 동안 민 권사님은 모든 분야에서 달라져 있었는데 남편은 성격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 민 권사님의 돌봄에 고마워하기는 커녕 불평과 짜증을 내고 함부로 야단치는 상황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민 권사님은 지난 10년 동안 병원선교, 호스피스 교육, 병상실습을 하면서 갖고 닦은 실력으로 남편을 보살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불평 가득하던 남편이 “언제 이렇게 똑똑해졌냐”며 감탄을 하더라.

짜증을 들으면서까지 이혼한 남편을 돌본 이유는 복음이었다. 가족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만아들은 금식기도를 했다. 아들들도 병상에 나와 아버지를 보살폈다. 그 와중에도 죽음에 이르는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우리 봉사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중보기도를 시작했다. 나 또한 병상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민 권사님은 “아직도 성질은 살아 있어서”라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 남편을 '성도'로 변화시키다

지난 5월 10일 전화를 받고 남편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먼저 와 계신 오 룬교회 봉사자 두 분과 함께 병상을 찾았다. 민 권사님은 방금 전까지도 복음을 전했다고 했다. 남편이 항암주사를 맞아 혼수상태임에도 복음을 전하면 “고마해라 시끄럽다. 그 말 할라면 가라”고 했다는 것이다.

나는 환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인사를 나눴다. 질병의 고통을 겪는 환우의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부분을 터치하면서 질병이 죽음까지 인도할 수 있다는 현실에 대해 이해를 시키기 시작했다. 그리고 죽어도 모든 가족이 함께 만날 그 곳을 소개했다.

“우리의 마지막 분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면 ‘거룩한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 받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얼굴에 어떤 긴장감이 서렸다. 그러면서 아내를 원망하듯 바라보았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설명을 마치자 성경을 두 손으로 빼앗더니 보이지도 않는 글자를 들여다보려고 안간힘을 썼다. 기운이 없어 떨리는 손으로 있는 힘을 다해 성경을 들고 계셨다. 이

모습을 본 민 권사님은 그동안 전한 복음이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에 싱글벙글 했다.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세례를 베풀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돌아가고 있음을 믿습니까?”

“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올까?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민 권사님이 전했던 복음을 강력하게 거부했던 마음속에 잠재하신 성령의 역사는 한순간에 남편을 ‘성도’로 변화시켰다.

홀로 외로이 살아온 15년 세월과 질병의 고통과 절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찾아온 것이다. 아버님을 호적에 올려주자는 만여노리의 제안에 따라 노복식 성도는 호주(戶主)로 복귀했다. 온 가족이 아무런 이해타산 없는 사랑을 베풀 때 손자손녀의 할아버지로, 아들들의 아버지로, 민경애 권사님의 남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노복식 성도의 세 달 동안의 병상생활은 민 권사님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었다.

“매일 화를 내고 소리 지르고 가버리라고 때를 써도 한 번도 밟지 않았어요. 더 따뜻하게 닦아주고 주물러 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저귀를 갈면서도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 해야 할 아가페 사랑이다. 감사하게도 노복식 성도의 장례예배에는 양재공동체 성도들이 함께했다. 장지는 문막 온누리동산이었는데 그 장소가 노복식 성도에게 베풀어지는 특별한 또 하나의 축복이요 은혜였다. 김사무엘 목사님과 피현희 목사님 묘소 곁에 노복식 성도님을 안치했다. 집례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부럽다며 한 마디씩 하셨다. 노복식 성도님은 교회 한번 나오시지 않고도 좋은 장소에 묻히셨다.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이런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며 장례를 마무리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우리들의 기도는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실현되고 있다. 노복식 성도님과 민경애 권사님은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교훈을 남겼다. 전도가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실현해 보라 권면하고 싶다.

특집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

# 강원도에 깃든 신앙과 민족정신

##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이 곧 기독교인의 역할

본격적인 여름휴가철이다. 본지에서는 '한국 선교, 그 흔적을 찾아서'를 주제로 여행도 하고, 순례도 할 수 있는 선교여행 코스를 추천하고 있다. 그 네 번째 코스는 '강원도'다. 한반도 중부 동쪽에 위치한 강원도는 신앙 선배들의 믿음과 민족정신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찾던 바로 그 여행지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강원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관광이다. 그만큼 강원도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설악산, 오대산, 태백산이 모두 강원도에 있다. 거기다 하얀 모래밭과 푸른 바닷물이 어우러진 동해안은 그야말로 힐링(Healing)을 위한 최적 장소다. 그 아름다운 강원도에서 순례도 할 수 있다. 춘천, 강릉, 양양에 가면 강원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선 이덕수 전도사, 하디 선교사, 나라의 독립을 위해 온 몸을 바친 김영학 목사, 여성독립운동가 조화벽, 안경록 목사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

### 조선의 바울, 이덕수 전도사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영서지역과 영동지역으로 나뉘는데 영서지역인 춘천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부흥시킨 사람이 있다. 이덕수 전도사다. 이 전도사는 예수 믿기 전만해도 술과 놀음에 빠져 살았다. 아내를 매질하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그런 그가 매서인(성경을 배우하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끌려 그 길로 교회에 갔다. 그때부터 술과 놀음을 끊고 쪽복음(성경)과 찬미가를 듣고 전도를 시작했다.

당시 춘천 선교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로버트 무스 선교사는 이덕수 전도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가 솔깃했다. 함께 전도할 한국인으로 이덕수 전도사가 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 둘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때부터 춘천이 복음화되기 시작했다.

이덕수 전도사는 날마다 지게에 쪽복음을 지고 춘천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다. 그 모습은 본 사람들이 이 전도사를 '지게 전도자', '조선의 바울'이라고 불렀다. 이 전도사는 자신의 네 칸짜리 초가집을 예배당으로 내 주기도 했다. 그 네 칸짜리 초가 예배당이 춘천중앙교회의 초석이 됐다.

현재 춘천중앙교회는 확장 이전해서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다. 춘천중앙교회 교육관 1층에는 이덕수 전도사의 이름을 딴 '덕수홀'



민족사랑을 몸소 보여준 양양교회(왼쪽)와 안경록 목사의 흉상(오른쪽).



이 있다. 교회 뒤뜰에는 이덕수 전도사 묘지와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에 적힌 그의 유언을 보면 오직 복음 전파에만 힘썼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주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 한국부흥운동 시발점 '로버트 하디 선교사'

영서지역 복음의 씨앗이 이덕수 전도사라면 영동지역은 로버트 하디 선교사다. 로버트 하디 선교사는 1890년 '캐나다 대학생선교회' 파송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당시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머무는 곳이 곧 병원이요, 선교지였다. 그는 원산에서 시약소를 운영했고, 평안북도 영덕에서 강원도 원주를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돌봤다. 1899년부터는 강원도 순회 전도사역을 시작했다. 1901년에는 강원도 영동지역 일대를 순회하면서 조선인 15명을 전도했고, 무려 5번이나 동해안을 순회하며 강릉중앙감리교회, 고성 간성감리교회, 양양교회를 세웠다. 1903년 있었던 그의 진심어린 회개가 원산부흥운동을 촉발시켰다.

“최선을 다해 섬겼지만 조령만 돌아올 때 저는 알게 모르게 조선을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성도들이 뜨겁게 회개하기 했다. 그것이 불씨가 되어 '원산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여파가 그 유명한 '평양대부흥운동'까지 이어졌다. 한국부흥운동의 시발점인 바로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다.

### 그 중심에 있는 '양양교회'와 '강릉중앙교회'

지금도 강원도에 가면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발자취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양양교회다. 춘천중앙감리교회

에서 동쪽으로 차를 타고 1시간 15분 거리에 있다.

평일 낮에도 양양교회에는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다. 양양교회에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이름을 딴 '하디 어린이집'에서 나는 소리다. 양양교회 3층 대예배실 이름도 '하디 예배실'이다. 1901년 10월 양양교회를 창립한 로버트 하디 선교사를 기리기 위해 지은 이름이다.

또한 양양교회는 신앙뿐만 아니라 민족 사랑을 실현하는 사령부 같은 곳이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인물이 김영학 목사와 여성독립운동가 조화벽이다.

김영학 목사는 양양교회 5대 담임목사로 시무했다. 당시 상황은 처절했다. 농지수탈, 기독교 근절정책, 강제 이민 정책 등 일제의 만행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일제의 만행이 심해질수록 김영학 목사는 민족정신과 신앙을 강조했다.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고 나라 사랑을 생활화하십시오!”

1919년 김영학 목사는 만세운동 선봉에 섰다. 그 일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렀다. 출소한 뒤에는 '철원애국단'에서 활동했다. 조선독립을 위한 비밀결사조직이었는데 발각되어 1년 6개월 동안 또 다시 투옥됐다. 시련이 이어져도 김영학 목사의 민족사랑은 그칠 줄 몰랐다. 1922년 출소한 김 목사는 시베리아 선교사로 자원했다. 당시 시베리아에는 한일합방으로 나라를 잃은 수많은 동포들이 망명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러시아에서는 공산혁명이 일어나 교회 핍박이 극심했는데도 김 목사는 동포들을 위로하고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그곳으로 갔다. 그런 그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왔다. 1930년 공산당들이 김 목사를 '반동분자'라는 죄명을 씌어 구금하고 배교를 강요했다. 김 목사는 신앙을 굽히지 않았

다.

“목사는 교회를 위하여 순교하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다.”

그의 말처럼 김영학 목사는 영하 40-50도의 극심한 추위 속에서 복역하다 깨진 얼음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렇게 순교했다. 양양교회 2층에 가면 그의 이름을 딴 '김영학홀'이 있다.

김영학 목사만큼 민족을 사랑하고, 양양지역 3.1만세운동의 불씨가 된 이가 있다. 조화벽 여사다. 조화벽 여사는 독립운동가 유관순의 오빠 유우석의 아내다. 조 여사는 개성 3.1만세운동 당시 호수돈 여학교 비밀결사대 주역으로 활동했는데 조선총독부의 휴교령에 따라 학생들이 고향으로 흩어지면서 조 여사도 양양으로 왔다. 위기는 곧 기회였다. 조화벽 여사는 어렵게 독립선언서를 숨겨왔는데 그것이 강원도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 양양 3.1만세운동의 씨앗이 되었다. 조화벽 여사가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김필선이 전달받아 면사무소 등사판으로 복사하고, 교회청년들과 함께 태극기를 만들었다.

또한 조화벽 여사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 무산아동 교육시설인 '정명학원'을 설립해 농촌계몽에도 헌신했다. 양양교회 1층에 가면 '조화벽기도실'이 있다.

강릉중앙교회도 의미 있는 곳이다. 양양교회에서 남쪽으로 차타고 30분정도 가면 있다. 1901년 5월 로버트 하디 선교사가 윤성근과 함께 명국성 성도의 여덟 칸짜리 초가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지금의 강릉중앙교회가 됐다. 강릉중앙교회는 1910년 의송학교, 1915년 의송유치원을 설립해서 교육에도 앞장섰다. 민족운동에도 힘썼다.

1919년 강릉지역 만세운동이 강릉중앙교회 청년들 주축으로 일어났다. 그 중심에 강릉중앙교회 5대 담임목사였던 안경록 목사가 있다. 안경록 목사와 청년들은 1919년 4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준비했는데 시작도 해보기 전에 위기를 맞았다. 거사계획이 발각됐기 때문이다. 안 목사와 청년들은 더욱 강화된 일경의 감시와 검속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교회 지하실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장날이었던 4월 2일 사람들에게 태극기와 독립선언문을 나눠주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 일로 안 목사는 옥고를 치렀지만 굴하는 법이 없었다. 민족혼을 일깨우는 일이 곧 기독교인의 역할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다.

강릉중앙교회 출입문 오른쪽에는 하디홀이 있고, 앞마당에 가면 안경록 목사의 흉상이 있다. 안경록 목사의 강직한 표정을 보노라면 민족을 향한 절개가 고스란히 느껴진다.

### ▶선교여행 코스

춘천중앙감리교회-양양교회-강릉중앙교회

## 수원 북누리공동체 청산도



왕문식 집사  
(수원 북누리공동체)

올해 아웃리치 날 짜가 정해졌다.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남해 끝자락에 위치한 청산도 ‘청산교회’를 섬기기로 했다. 청산도는 서울에서 거리가 너무 먼 곳이라 아웃리치팀이 방문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청산교회를 위로하고 섬기기로 결정하고 아웃리치 준비를 시작했다.

그런데 시작부터 많은 문제에 봉착했다. 청산도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인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참가신청 인원엔 마음이 무거웠다. 또한 답사를 가는 도중에 파도가 심해 돌아와야 했고, 의료사역 위주로 사역하기로 했는데 함께 할 의사가 없었다. 청산도 주민 100여명을 초대해서 식사(바비큐)를 섬기기로 했는데 그 많은 식재료를 상하지 않게 가져가는 문제도 쉽지 않았다. 아웃리치팀이 먹어야 할 재료까지 포함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공동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웃리치 예산이 초과되어 이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도 생겼다. 이처럼 많은 문제를 끌어안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 되어 기도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인원이 아웃리치를 함께 가게 하셨다. 무려 122명이 신청했다. 이 많은 수가 먹고 자고 지내야

하는데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청산도에는 숙소도, 대형 식당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하나씩 풀어주셨다. 의료사역에 함께 할 의사는 현지 보건의를 연결해 주셨다. 식사를 위한 식재료도 현지 마트에서 조달해서 신선도를 유지하게 하셨고, 부족한 아웃리치 예산은 공동체가 하나 되어 준비해서 충분한 재정으로 마음껏 섬기도록 은혜를 베풀었다. 숙소는 200명까지 묵을 수 있는 복지관을 대여하게 해주셨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날씨가 문제였다. 아웃리치를 한주 남기고 남해안에 태풍이 올라와 비가 너무 많이 내렸다. 정해진 날짜에 배를 타지 못하면 다른 방도가 없었다. 우리는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는 장면에서 잠을 잤다는 말씀이 마음에 꽂혔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 분명 내일이면 처형당할 텐데 어떻게 잘 수가 있었을까?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죽고 사는 것도 아닌 날씨 문제로 이렇게 걱정이 태산 같은데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주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으면 죽음 앞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예수님이 나의 전부요, 나의 주권자이신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에서도 걱정하고 힘들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서는 아무 걱정이 없게 하셨다. 오

## 아무 걱정이 없게 하셨다



북누리공동체 성도들이 청산도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있다.

고가는 길에 파도도 잔잔하게 하였고, 2박3일 아웃리치 기간 동안 비도 오지 않았다. 적절한 구름과 햇빛을 주셔서 청명한 하늘을 감상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전도, 바비큐, 의료사역(영양제 주사, 한방치료), 가족사진 촬영(액자 제공), 미용사역, 컨테이너 보수, 어린이사역 등 모든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정말 감동이었다. 특히 컨테이너 보수팀이 땀방울에서 일하느라 피부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웃으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해변에서 드린 공동체 중강예배도 정말 큰 은혜였다.

주일예배 설교에서 청산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잊히지 않는다. “여러분이 큰일을 하신 겁니다”라며 전도의 문을 여는데 한결 수월해졌다는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우리의 작은 섬김이 이 땅에 복음을 확장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니 기뻐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니 돌아오는 발길이 가볍고 기쁘고 감사했다. 이 모든 것이 수원 온누리교회 북누리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서 완전한 하나 됨을 이루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영광 돌린다.

## 평택 온누리교회 캄보디아



박승연 자매  
(평택 온누리교회)

나는 캄보디아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캄보디아는 국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도시 곳곳에 불상이나 신을 모시는 공간이 존재한다. 또 집집마다 새집처럼 꾸며진 작은 집이 있다. 선교사님은 그 작은 집에 화장된 조상의 뱃가루가 담겨져 있다고 하셨다. 그 작은 집은 떠도는 귀신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해주셨다. 캄보디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느껴졌다.

우리 공동체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했다. 그런데 같이 갔던 청년 중에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 본 사람이 극소수였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보자마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졌다. 우리가 언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팀원들 모두가 어린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어린이들이 우리를 반겨주고 진심으로 좋아해줬다.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우리는 성경학교, 체육대회 등을 준비했다.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팀이 가기 3주 전부터 주일에 교회 오는 아이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다. 달란트를 소지한 아이들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셨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해외 아웃리치 팀이 올 때만 교회에 나오고 다시 나오지 않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였다. 달란트가 없어 들어오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대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괜히 돌을 던지기도 했다. 나중에는 문을 열어주고 함께 활동했다. 그 잠시 동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와 알았으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국 문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아이들과 부채 만들기, 판 뒤집기, 체육대회 활동을 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치기도 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보니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영적 불모지에서 때 묻지 않은 맑은 어린이들과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웃리치 둘째 날 아침이 밝았다. 지난 밤 바로 옆집에 계시던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선교사님은 옆집 할머니가 2주 전부터 위독하시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캄보디아의 전통 장례문화는 2일 동안 큰 소리로 귀신을 부르고 마지막 날 집 앞에서 큰 제단을 쌓고 시신을 태운다.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함께 기도해달라고 하셨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 공간에서는 영생을 아는 자들의 찬양이, 다른 한 곳에서는 죽음으로 향하는 귀신을 부르는 소리가 동시에 울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전쟁을 선교사님과 아웃리치 팀원들이

##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말씀 퍼즐을 맞추고 있는 캄보디아 아이들.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계획하셨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내 옆에 있던 자매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 자매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졌고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기도하고 있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모든 팀원들이 잠에서 깨어나 함께 기도했다. 그 자매는 그날 방언을 받았고 옆에서 기도했던 또 다른 자매도 그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팀원들을 모아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셨다. 그 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행 1:8).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캄보디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그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 캄보디아 땅에 심겨져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가 넘쳐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한다.

## 푸른누리공동체 구세군 두리흠



최고야 성도  
(푸른누리공동체)

구세군 두리흠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우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이 생활할 공간을 제공하면서 미혼모들이 검정고시를 보거나 직업교육을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관이다. 양재 온누리교회 푸른누리공동체는 주말마다 서대문에 있는 두리흠을 방문해서 미혼모들의 자녀들을 돌봐주고 있다. 그리고 매년 엄마들과 아이들을 초청해서 함께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있다. 기관에 있는 친구들뿐 아니라 그 기관을 거쳐 독립한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도 함께하고 있다.

나는 이번 두리흠 아웃리치가 세 번째다. 지난 2년 동안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참여하지 못했다. 항상 공동체에 미안하고 빚진 마음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참석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그런데 아웃리치를 다녀와서 오히려 더 빚진 마음이 들었다. 그동안 꾸준히 섬겨온 지체들의 성숙하고 헌신적인 모습을 아웃리치 현장에서 생생하게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웃리치는 간단히 말해 미혼모들이 1박2일 동안 육아에서 벗어나 쉼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몇몇 자매들이 테이블 리더로 세워져서 4~5명의 미혼모

조원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동안 타아팁은 물놀이, 게임 등으로 아이들과 즐겁게 놀아준다. 맛있는 식사와 미혼모들과 자녀들을 위한 감동의 선물도 준비한다. 수고한 멘토님들과 진행부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섬김이들이 이번 아웃리치에 함께 해주었다.

부모가 되어도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이를 키워본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두리흠에 있는 미혼모들은 그 역할을 혼자서 해내고 있다. 실수든 사고든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해 낳고 키우고 있다. 우리는 그 친구들에게 잠시나마 힘이 되고, 쉼을 주고 싶었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테이블 리더로 섬겼다. 나와 함께 조를 이루게 될 미혼모들과의 만남을 준비하면서 조금 긴장이 됐다. 하지만 내가 염려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나와 함께한 친구들은 매우 밝았다. 테이블에 준비된 예쁜 과일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가져다주고 와도 되냐고 묻는 모습을 보고 엄마는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1박2일 동안 드라이브, 티타임, 레크리에이션 등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지막 날에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며 예배를 드렸다. 나중 시간에는 미혼모들의 사연을 듣게 됐다.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홀로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내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멋

## 그녀들에게 힘이 되고 쉼을 주고



물놀이를 하고 있는 푸른누리공동체 자녀들과 구세군 두리흠 미혼모의 자녀들.

지고 대견스러웠다.

아웃리치를 마무리할 때 장로님과 권사님이 나눠주신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장로님과 권사님은 “그들이 세상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줘야 한다”고 하셨다.

나는 이번 아웃리치에서 겸손히 섬기는 지체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다. 우리의 모습과 성격은 제각각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고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가 참 놀랍게

느껴졌다.

공동체 아웃리치를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도 있었다. 아이들이 아프기도 했고, 그로 인해 아웃리치에 함께 가지 못한 성도들도 있었다. 하지만 함께 하지 못한 많은 분들이 기도로 섬겨 주셨다. 하나님은 이번에도 우리 모두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다. 아웃리치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함께했던 자매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깨어 기도해야 한다.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다.

## 강동 프라미스U공동체 충남 보은



이창우 전도사  
(강동 대학부)

강동 온누리교회 대학부 프라미스U공동체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충북 보은(회인면 오동1길)에 있는 창성교회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그곳에서 어린이 캠프와 어르신 섬김을 하면서 “여호와를 기뻐 외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총 29명의 팀원들이 5월 답사를 시작으로 2달여 동안 금요기도회, 교사강습회, 팀별모임, 2주 전부터는 매일 온라인 중보기도모임, 아웃리치 교재 순모임, 발대식, 바자회 등으로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오 하나님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되도록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시 71:18).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4).

이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아웃리치를 준비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귀를 통해 내가 변화되어야 할 것을 기도했다. 그 덕분에 기도보다 사역이 앞서지 않고, 사역 전에 참된 예배자

로 바로 서서 놀라운 은혜를 부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으로 하나 될 수 있었다.

우리가 섬긴 창성교회는 2012년부터 프라미스공동체가 아웃리치로 섬겨온 곳이다. 한대봉 담임목사님과 사모님이 다문화가정(약 50명, 유치부, 중학생 포함)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 후 교실 ‘투게더 공부’를 운영하고 계신다. 이번 프라미스U공동체 아웃리치 목적은 창성교회가 속한 오동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돕는 것이었다.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고, 마스크팩, 안마, 마을잔치 등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전해지기를 소망했다. 어르신들이 마음의 문을 여시도록 기쁨으로 섬겼다.

또한 사도행전 28장 31절을 주제 말씀으로 어드벤처 수련회와 예배, 기도회, 물놀이, 캠프 파이어 등도 실시했다. 어린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다.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우리의 섬김은 비록 작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눴다. 그 과정에서 프라미스U공동체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됨을 경험했다. 사랑의 공동체로 발돋움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비전을 계속 품을 수 있음에 감사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기쁨

## “여호와를 기뻐 외치라”



강동 프라미스U공동체가 창성교회에서 어드벤처 수련회를 열었다.

의 섬김, 지혜를 구하는 자세,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이 복음이 되어 오직 예수만 나타나도록 섬긴 프라미스U공동체 지체들에게 감사와 사랑의 말을 전한다. 최고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류창민, 김택수 집사님과 한술, 한별, 효은, 주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율동을 가르쳐준 새아, 순수한 어린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교사 정일, 동현, 지수, 신원, 용빈, 선영, 명철, 소영, 광예진, 유진, 해린, 예배를 섬긴 김예진, 주님께 충성한 군인 준서, 태형, 프로그램을 섬기고 곳은일을

도맡아한 교사 종관, 준우, 사무엘, 재은, 채은, 예수, 은지, 중보기도팀 헤미, 소원, 유영, 명화, 운전으로 섬겨주시는 정국, 광섭 형제님, 찾아오셔서 격려해 주신 노치형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창성교회와 프라미스U공동체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한 메시지를 전한 이번 아웃리치는 한 영혼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였다.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 할렐루야!





2016 The One 집회에서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 막 오른다

‘Like Jesus’ 주제로 8~11일 전주대학교 대강당

대학청년부가 주관하는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이 다음 주 수요일(8월 8일) ‘Like Jesus’ 주제로 막 오른다. 8월 11일(토)까지 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The One 집회에서는 메인강의 7개, 주제 강의 및 선택식 특강이 하나씩 이어진다. 메인강의는 김승수 목사(대학청년부 본부장) ‘임재’, 하정환 목사(꿈이 있는 교회) ‘복음’, 이용규 선교사(〈내려놓음〉 저자) ‘청년’, 이상억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상담학) ‘자존감’, 이상준 목사(양재 온누리교회) ‘선교

’, 임은미 선교사(KOSTA 강사) ‘성령’, 정진호 교수(평양과학기술대학)가 ‘비전’을 주제로 한다. 주제강의는 배상민 교수(KAIST 산업디자인학과)가 ‘일터’를 주제로 한다. 선택식 특강은 이성교제(김숙경 간사)와 이단(김강림 전도사) 관련 강의 중에서 선택해서 들으면 된다. 게스트도 풍성하다. 히스팝, 매트블랙워십, CCM 가수 김도현, 지미션, 노상진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이번 The One 집회에 주차봉사자로 섬기는 최병현 형제(요셉공동체)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에 어디에

있든지 기쁨으로 섬기고 싶다”며 “그 기쁨이 참가자들에게도 전해지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전국대학청년수련회 The One은 지역교회 청년들을 위한 집회다. 2년마다 개최된다. 재작년 The One 집회에 참가했던 정은지 자매(참좋은교회, 제주도)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녀로서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고백했다.

문의: 박정선 간사  
(02-3215-3745)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 NGO 더멋진세상, 정부 협력사업 확정

사업비 24억 5천만 원 지원 받아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이 정부 협력사업 포함 사업비 24억 5천만원 지원 받으며 정부의 든든한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이 금액은 NGO 더멋진세상 올해 전체 예산의 40%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NGO 더멋진세상은 오는 8월 9일 정부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우간다 난민학교 오픈식을 개최한다. 이외

에도 NGO 더멋진세상은 르완다에서 아동 영양 개선사업, 모자보건 등의 정부협력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세네갈 농업개발사업, 서부 아프리카 성경보급사업, 기니비사우 고아원 사업 등의 정부 협력사업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이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한터 기숙사 학생 및 봉사자 모집

남학생 3명, 반찬봉사 및 기초학문 지도

탈북민 대학생들의 주거생활을 돕기 위해 한누리사역에서 운영 중인 한터 기숙사에서 남학생 세 명과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반찬봉사나 기초학문을 지도해줄 봉사자를 찾는다.

한터 남학생 기숙사는 독립문, 여학생 기숙사는 강남구청 근처에 있다. 이승자 사장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조그마한 관심이 탈북민 대학생들의 생활만족도와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기회가 된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 문의: 010-9455-1494

편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한터 기숙사에 처음 들어 온 날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한터 기숙사에 머무는 동안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머무를 곳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마음 편히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지내면서 정말 좋은 추억을 쌓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돌려보내며 살겠습니다.

/ 이기쁨 자매

## S브릿지공동체 ‘선교세미나’ 개최

오늘 오후 3시 30분 서빙고 식당

S브릿지공동체가 오늘(29일) 오후 3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식당에서 선교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용호 처장(전주비전대학교)이 ‘한국 선교사에서 해외 선교사의 발걸음’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지난 22일에도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에서 선교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우진 선교사(베트남)가 ‘아웃리치와 영적전쟁’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선교사는 “우리

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여름 아웃리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승리를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김정미 성도(S브릿지공동체)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웃리치에 대한 강의를 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며 “선교에 대한 좋은 정보와 다양한 내용을 접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말했다.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 나눔장터 물품 모집

서빙고 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서 사용가능한 물품을 모집한다. 기증 가능한 물품은 의류, 서적, 액세서리, 식기구 등이다. 사용한 솥, 손상이 심한 가구 등은 기증할 수 없다. 기증할 물품은 서빙고 온누리교회 지하 1층 식당 뒤편과 지하주차장 입구에 있는 회수함에 넣으면 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나눔장터에서는 성도들이 기증한 물건을 판매한 수익금을 탈북민, 다문화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

## 예수사랑부 여름캠프 봉사자 모집

8월 17일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국여성수련원

서빙고 온누리교회 예수사랑부가 여름캠프 봉사자를 모집한다. 예수사랑부 여름캠프는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진행된다. 관심 있는 성도는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

다.

방경선 총무(예수사랑부)는 “많은 봉사자들이 예수사랑부 캠프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권찬송 기자

## Acts29비전빌리지, 장기선교사 위한 재훈련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온누리교회 파송 장기선교사를 위한 재훈련이 한창이다. 9기 본국선교사훈련(H2H)과 1기 본국선교사리더십훈련(H2K)이 그것이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9기 본국선교사훈련(Home to Home)은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선교현장에서 4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6주 동안 안식

과 재충전 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이다.

1기 본국선교사리더십훈련(Home to Kingdom)은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선교현장에서 12년 이상 사역한 선교사들이 대상이다. 한층 더 성숙한 리더십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훈련 프로그램이다.

### 세례자명단

#### 서빙고

김승연 640107  
김혜숙 390202  
박은주 760803  
유완숙 621020  
이용한 691218  
장한빛 990506  
전용현 830415  
한현수 320929  
한혜민 730727

#### 유아

김선형 160704  
김성중 이한나  
김하은 160908  
김성하 신미리  
심주환 171026  
심준보 박은진  
유지혜 170627  
유희석 손경화  
이라희 180212  
이선직 조연재  
이연우 160719  
이주형 이서희  
최사랑 170904  
최민준 홍진영  
최솔희 180528  
최형준 한은희  
허로희 180102  
허은석 한혜진

#### 양재

손정민 740929

#### 선정은

890219  
조주영 740616  
지은영 760303  
유아  
김서아 170714  
김광원 정다운  
김서한 160811  
김대윤 진윤정  
김재원 170531  
김현준 허자운  
김태호 160705  
김재원 안수지  
박선우 170928  
박종철 이우림  
박이안 161004  
박우근 박솔기  
송태주 161208  
송기선 박미선  
양승우 160611  
양민석 김소연  
이은 161016  
이완 오소람  
이재원 170729  
이지음 윤정아  
정라엘 161220  
정요한 김민경  
정필립 160912  
정종호 김주현  
제하선 160805  
제진산 주은혜

## ■ 새사람사역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



##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 김사랑(가명, 소망교도소 재소자)

나는 젊은 나이에 삶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지향했던 것들을 빠르게 이룩하면서 세상에 서 말하는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고급 승용차, 명품 시계, 명품 구두, 명품 가방, 하룻밤에 수백만 원씩 결제되는 유흥비 등으로 사치스럽고 방탕한 생활을 했다.

나는 부족함 없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점점 병들어 갔다. 방황하는 나를 받아주고 보듬어 주는 곳이 없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였다. 그런데 나는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했다. 그러면서 몹시 리치는 외로움과 고독감에 빠졌다. 더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다. 이 두려움이 나를 포악하고 추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결국 그 포악함이 나를 죄수로 만들었다.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고 소망교도소에 오게 됐다. 나는 교도소에 들어와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야.”

교도소에서 허망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찬양봉사를 위해 소망교도소를 찾아주신 ‘온누

리합창단’을 알게 되었다. 온누리합창단 단원들은 발달장애를 가진 분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고 여겼던 장애인들이 내 앞에 있어서 몹시 불쾌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찬양을 하고 있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을 펄펄 쏟았다. 온누리합창단 단원 중 한명이 “저희도 여러분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도 축복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요동치면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날부터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지난날 나의 잘못들이 비취졌다. 그렇게 믿음 생활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가페 교육을 통한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게 됐다. 양육자로 섬겨주신 집사님을 보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다. 집사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큰 감동을 줬다. 하나님과 어머니 같은 집사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 은혜입니다.”

## ■ 내적치유학교 스태프 간증



/ 전은수 성도(내적치유학교)

나는 내적치유학교에서 엄마를 용서하기로 결단했다 그때 주님은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대상이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생각지도 못했던 반전이였다.

“내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생각들을 떨쳐버리기 위해 하나님과 계속 씨름했다. 하나님은 나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방관하신 분, 나를 외롭고 춥고 배고픈 곳에 버려두신 분이였다. 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만 있을 뿐 순수한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 나는 그저 벌을 받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온 것이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뿌리 깊은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내적치유학교에 참여하면서 이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회개했다. 그러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던 견고한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죽을 것처럼 두려웠지만 이내 예수님이 내 눈 앞에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이미 죽었다. 나는 예수님의 피 값으로 새 사람이 되었어.”

##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전까지 나는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내게 올바른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하셨다. 하나는 진정한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다. 내가 오해했던 엄마와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고백하는 용기가 필요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혀 듣지 않았다. 듣고 싶은 말만 들을 뿐 내게 불편함을 주는 말에는 귀를 닫고 있었다. 내 완악함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을지 알게 됐다.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다.

지금 나는 내적치유학교 조장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다.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신다. 8월 3일부터 5일까지 진행될 내적치유학교에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리길 바란다.

문의: 010-6330-7634

## ■ 남양주 온누리M미션 여름수련회 간증



/ 소바 전도사(남양주 온누리M미션)

## 주님의 지상명령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를 향해있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길 원하신다.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상명령이다.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지상명령에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원하신다.

남양주 온누리교회는 ‘남양주 온누리M미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이주민들에게 전하고 있다. 한국에 정착하고 있는 이주민들은 낯선 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은 이주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남양주 온누리M미션이 지난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옥계면 영화마을에서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인도인 23명, 네팔인 15명, 별내다락방 아웃리치팀과 스태프까지 모두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련회는 별내다락방과 스태프들이 함께 기도하며 준비한 만큼 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었다. 예배와 찬양, 레크리에이션, 저녁집회, 기도회, 그룹

나눔 및 발표, 물놀이 등을 했다.

인도와 네팔은 공개적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주민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여름수련회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이키기 시작했다. 저녁집회에서 몇몇 인도와 네팔에서 온 형제들이 하나님을 깊게 만났다고 고백했다. 그들이 경험하고 느꼈던 특별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나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어떤 형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적인 깨달음을 얻었다고 고백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성령님께서 친히 도우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과 믿음을 선물로 주시리라 믿는다. 계속 그들을 섬기고 중보하면 언젠가는 그들이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인도와 네팔에서 온 형제자매들을 대신해서 사랑을 주시고 성심껏 섬겨주신 남양주 온누리교회 리더십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 인천 헤브리키즈 코치 간증



/ 박준수 성도(인천 온누리교회)

## ‘헤브리키즈’를 아시나요?

헤브리키즈(이하 헤키)는 2012년 8월 21일 인천 온누리교회에서 만들어진 영어예배다. 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일 오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예배를 드린다. 헤키에서는 영어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영어와 한국어로 통역되고 있다. 설교 후에는 함께 영어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헤키는 성인들이 오후 예배를 드릴 때 밖에서 배회하던 어린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어린이들에게 영어 찬양과 성경암송 등을 통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영어에 관심 있는 선생님 10명이 모여 시작했다. 그런데 헤키에 참여한 대부분의 아이들이 영어예배에 쉽게 집중하지 못했다. 이미 유년부나 초등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딴 짓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때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할지 무척 어려웠다. “쉿, 조용”,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집중해야지”, “바로 앉자”와 같은 지적은 딱 1분 동안만 효과가 있었다. 태도가 좋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기도 하고, 선생님 바로 옆에 앉아서 밀

착관리를 하기도 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정말 답답했다. 그러던 중에 내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바로 아이들과의 관계다. 아이들과 먼저 충분히 친해지는 게 필요했다. 그래서 아이들과 피구도 하면서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도 말을 안 듣고 딴 짓만 하는 말쑥꾸러기라는 사실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아이 같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을 느꼈다.

헤브리키즈를 처음 시작할 때 10명의 선생님 40여 명의 아이들로 북적거렸던 때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개인 사정으로 빠지는 선생님들이 계셨고, 나도 일 때문에 한동안 헤키를 섬길 수 없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도 헤키를 끝까지 지켜주셨던 분들이 있다. 이하니 전도사님, 조성준 코치님, 김태영 선생님이다. 그분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 장로칼럼

### 아름다운 공동체



박일환 장로  
(양천공동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우리 공동체가 경험한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양천공동체는 다른 공동체에 비해 규모가 큰 공동체다. 그래서 장례예배도 잦은 편이다. 나는 외롭게 아들을 키우셨던故 광동희 권사님의 장례예배를 잊을 수가 없다. 두 해 동안 힘겨웠던 투병과 아들 부부의 극진한 간병, 공동체 가족들의 간절한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권사님이 하나님 품에 안기셨다. 우리는 홀로하신 권사님을 떠나보낸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었으리라 믿는다. 우리는 꼭 권사님의 안치유를 위한 기도부터 장지예배까지 함께했다. 우리 공동체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권사님께서 참 안식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천국이 진짜 있음을 확실하게 됐다.

약 한 달 전이었다. 한 어머니가 딸이 출근길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났다고 이야기했다. 딸은 큰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어머니의 긴급한 기도제목이 공동체와 권사님들의 기도방에 전해졌다.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그 딸의 치유와 회복을 간구했다.

“하나님!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그 딸을 치료해주세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수술이 급히 이루어졌고 그 딸은 다행히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있었다. 우리 공동체는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픈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다.

양천공동체는 힘든 시간뿐 아니라 즐거운 시간도 함께 보낸다. 1다락방 1사역, 주차봉사, 국내외 아웃리치 등으로 많이 지쳐있었다. 그래서 공동체가 쉬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진정한 쉼에는 Reflection(과거에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 Refreshment(현재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함), Recreation(미래를 새롭게 창조)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지난 5월 22일 이른 아침, ‘쉼,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강릉으로 리트릿을 갔다. 강문, 안락, 영진 해변으로 나뉘어 연령대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우리는 공동체 활동을 잘 하지 않았던 성도들, 믿지 않는 배우자들을 초청했다. 쉼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은혜를 나누는 간증들이 줄을 이었다. 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재충전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셨다. 몇 년 전 큰딸에게 안면근육 떨림이 생기기 시작했다. 최근 이 증상이 심해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뇌수술을 해야 했다. 두려움에 떨던 딸이 정작 수술실 앞에서 걱정 말라며 우리를 안심시켰다. 수술이 끝난 후 딸은 내가 알던 그 딸이 아니었다. 유아세례를 33년 전에 받았지만 입교에 망설였던 아이가 스스로 입교를 결심했다. 자신의 꿈과 성공을 향해 뛰던 딸이 나눔의 삶을 말하기 시작했다. 우리 부부는 새로운 딸이 생긴 듯 어리둥절했다. 우리 딸을 위해 눈물로 기도한 공동체의 사랑이 딸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나에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 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린다.

## 권사칼럼

### 말씀 그리고 성장



문계현 권사  
(평택 온누리교회)

나는 2년 7개월 전에 서울에서 평택으로 이사했다. 그때부터 평택 온누리교회에 출석했다. 평택 온누리교회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중 하나가 젊은 세대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하나님께 물었다. 그러던 중에 청년부 멘토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세상과 구별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청년부 멘토로서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평택 온누리교회에 다니기 전 서울에서 큐티나눔방을 10년 동안 섬겼었다.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내 삶이 회복되고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며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했다.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다. 청년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년사역뿐 아니라 예수님의꿈(이후 예꿈)에서 교사로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다. 사실 예꿈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젊은 부모들을 세우는 일이다. 젊은 엄마들은 직장생활과

육아로 많이 지쳐있다.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나는 젊은 엄마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다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했다. 말씀 안에서 그들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남편은 순장으로 오랫동안 섬겼었다. 남편을 도와 순을 섬기다 보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순원들을 만나게 된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그들을 섬길만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매순간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순원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셨다.

평택 온누리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성장시키셨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다. 많은 일을 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로 힘든 시간을 겪었다. 그때마다 새벽기도에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주셨다.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정말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됐다.

나는 작년에 권사 직분을 받았다. 권사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하지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행하실 것을 신뢰한다.

나는 평택 온누리교회를 떠나 다시 서울로 이사를 간다. 평택에 있었던 2년 7개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알게 됐다. 앞으로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할 것이다.

## 신앙에세이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홍기완 목사  
(J4U공동체)

믿음의 가정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다. 헨리 나우엔으로부터 그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영성이 헨리 나우엔은 믿음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했다.

첫째,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친밀하다. 믿음의 가정 가운데 비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방 어막을 내려놓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린다.

둘째, 믿음의 가정은 풍성하다.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믿음의 가정은 기쁨이 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다.

성경에서도 믿음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이 끝나갈 때 안정과 평안이 이스라엘 가운데 정착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삶이 안정되고 풍부해지면서 그들에게 영적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여호수아가 안타까움을 느끼며 여호수아서 24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 높여 외쳤다. 그 내용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섭리와 도우심에 관한 것이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예배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택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섬기던

바알이나 다른 토착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물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고백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가치가 다원화된 사회이다. 그러다 보니 한 가정의 식구들도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장 먼저 부모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누가 뭐래도 아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고 가족의 제사장이다. 자녀들을 축복할 권세가 아버지에게 있다. 어머니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이 되어야 한다. 어머니가 흔들리면 자녀도 흔들리고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부모가 수고하여 얻은 것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겨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

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여호수아는 한 평생 전쟁해서 얻은 땅을 후손들에게 남겼다. 여호수아는 단순히 땅만 물려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결코 잃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위대한 선물이다.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살고 내가 살아야 민족이 산다. 가정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고 나라도 무너지는 것이다. 가정은 생명의 터밭이다.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가정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성장하고 자라기 때문이다. 생명의 터밭인 가정의 토양은 참으로 중요하다. 여호수아가 주저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고백이 필요하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곽상학 목사의 말과 말씀 3



곽상학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며칠 전 한 유명 정치인이 생을 달리했다. 그가 남긴 유서(遺書)에는 정상적인 후원절차를 밟지 않은 자신의 판단이 가족과 당(黨)과 국민 앞에 부끄럽다고 했다. 당의 앞길에 누를 끼친다는 소회를 남긴 그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스스로 모진 선택을 하고야 말았다. 짧지 않은 정치 인생 동안 수많은 역경을 이겨냈던 그도 수치심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안타까운 퇴장을 뉴스로 접하면서 죄책감과 수치심이야말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마음의 무게라고 한 어떤 이의 말을 실감했다.

우리말 ‘부끄러움’에 해당하는 한자어 ‘창피(猖披)’라는 단어는 ‘망신’, ‘수모’ 등과 함께 체면이 깎이는 일이나 아니꼬운 일을 당할 때 쓰는 말이다. 이 말의 어원은 의외로 웃과 관련되어 있다. 창(猖)은 원래 ‘미쳐 날뛰다’는 뜻이고, 피(披)는 ‘풀어 헤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은 중국 전국시대(戰國時代) 가장 유명한 시인 굴원(屈原)이다. 그가 쓴 서사시 〈이소경(離騷經)〉을 보면 “하갈주지창피해(何桀紂之猖披兮)”라는 구절이 나온다.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하

라 걸왕(桀王)과 은나라 주왕(紂王)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 옷을 풀어 헤치고 품위와 체통을 잃고 당황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 후 ‘창피’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널리 쓰이게 되었다.

왕이 춤을 춘다. 그것도 온 힘을 다해서 말이다. 이스라엘의 제2대 왕 다윗은 드디어 여호와와의 계약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온 힘을 다해 춤을 춘다. ‘에봇(겔옷)’을 입기 전 속옷 격인 ‘베 에봇’을 입은 채 말이다. 경중경중 뛰며 춤을 추고 있는 남편(왕)을 창문으로 바라보는 사울의 딸 미갈은 마음속으로 비웃었다. 다윗이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미갈은 참지 못하고 심중의 말을 쏟아내고 만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 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한마디로 창피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체통 없이 춤을 출 수 있는 것이다. 다윗은 미갈을 향해 일갈(一喝)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 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뿔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체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볼 것이요.”

## 창(槍) 피(避)한 다윗이 창피(猖披)하지 않은 이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온 누리의 왕 앞에서 추는 춤을 결코 창피한 행동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그의 인생 여정 가운데 창피하지 않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없었겠는가. 자신의 충직한 신하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성적(性的)으로 범하고 선지자 나단에게 칼날 같은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죽을 정도로 창피하였을 것이다. 그는 그 민낯의 창피함을 자기기만(自己欺瞞)이나 자포자기(自暴自棄)로 합리화하지 않았다.

“하나님,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오 하나님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둬 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마도 다윗은 기억할 것이다. 시기와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이 자신을 향해 내뿔었던 독살과 만행을 말이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발작이 도진 사울은 집 안을 돌아다니며 “다윗을 벽에 다 박아 버리겠다”고 소리를 질렀다. 급기야 그런 자신을 위해 하프를 연주하던 다윗을 향해 창(槍)을 던져 버렸다. 그 위기의 순간, 두 번이나 그 날카로운 창으로부터 몸을 피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울의 그 거친 창으로부터 몸을 피하게 해 주신 하나님은 일개 양치기 소년 목동 다윗을 택정하여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기름 부은 왕이신 하나님이셨고, 골리앗을 물뿔뿔로 쓰러뜨리게 하신 승리의 하나님이셨고, 요나단과의 우정을 통해 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셨다.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술한 고비와 숨 막히는 역경을 보란 듯이 딛고 일어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그분 앞에서 춤추지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것 아닐까?

폭염의 기세에도 올 여름 전국의 수많은 수련회마다 믿음의 세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윗처럼 춤을 출 것이다.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며 춤을 춰~ 아무것도 내 열정 막을 수 없으리~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벗겨진 베 에봇의 ‘창피’를 ‘은혜’로 덮여주신 왕이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열정의 춤(The Dance of Passion)’일 수밖에 없었다. 편견과 아집으로 뿔뿔 뿔뿔 교회와 하나님을 비웃는 이 세상 앞에 기죽지 말자. 창피해 하지 말고 다윗처럼 춤을 추자. 당신의 백성이 창피를 당하도록 가만있지 않으실 우리의 왕이 시퍼렇게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기죽지 마라! 네가 창피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사 5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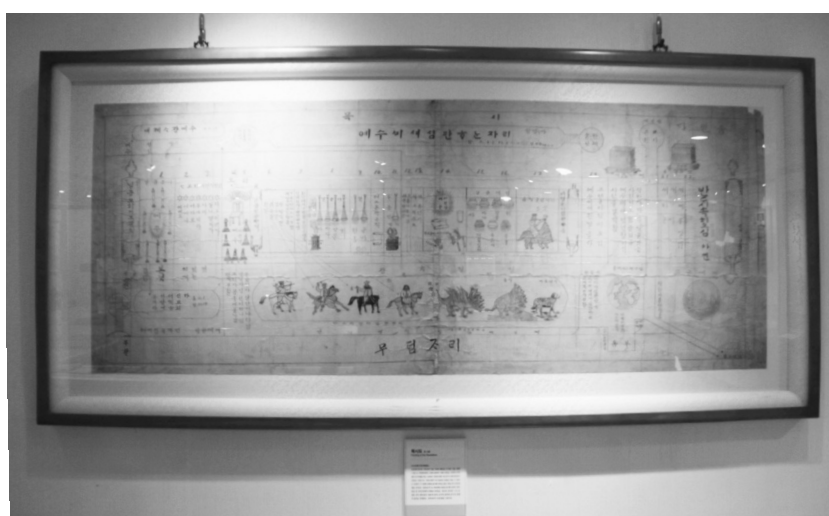
##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곳 경기도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눈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이 하신 말씀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를 되새기고 그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역사에서 좋은 부분은 계승하고, 안 좋은 부분은 교훈 삼을 때 역사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한국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가면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1955년 설립된 ‘기독교문사’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기독교문사는 ‘한국 기독교 문화 창달’을 이념으로 설립된 기독교전문 출판사다. 故 한영제 장로가 기독교문사를 운영하면서 각종 기독교 문서와 유물들을 수집했다. 한 장로는 이 자료들이 학계와 교계 연구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1995년 ‘향산 기독교역사자료실’을 설립했고, 2001년에는 기독교역사자료실에 보관된 유물들을 모아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을 설립했다. 일반인들도 다양한 기독교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박물관의 개관 목적이다.



이천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 전시돼있는 목시도.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에는 고문헌, 사진, 지도, 신문, 잡지, 향토지, 통계자료, 박물관자료 등 약 10만여 점의 초교과적 기독교 문서와 유물들이 보관되어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크게 ‘상설전시장’과 ‘특별전시장’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설전시장에는 19세기부터 625 전쟁 이후 기독교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후세도(요한계시록)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표현한 그림, 목시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세 예언을 묘사한 책세 그림), 주기철 목사의 친필편지, 김선주 목사의 친필병풍(2014년 복원), 언더우드 선교사의 타자기 등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 희귀한 자료들을 다량 보관하고 있다. 안내자의 해설과 함께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어 한국 기독교 역사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축소 복원한 ‘평양 장대현교회’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의 묘미 중 하나는 5분의 1크기로 축소 복원한 ‘평양 장대현교회’다. 평양 장대현교회는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진원지다. 축소 복원된 장대현교회는 특별전시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오는 8월 30일까지 루터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 ‘종교개혁이 연 새 세상’을 주제로 특별전시회가 이어진다. 한국 교회의 발전 과정도 생생하게 들여다 볼 수 있다. 각종 유물들이 성경번역, 교육, 사회봉사, 여성, 예배, 한국의 근대화 등의 범주로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목사지법(1919년 광안련 선교사가 신학교 교재로 저술) 등 목사들을 교육하던 지침서도 전시하고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찬양가집과 찬미가(감리교에서 1892년 번역)도 볼 수 있다.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관람료는 없다. 8월 23일부터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획전시를 할 예정이다.

문의: 031-632-1391

/ 권찬송 기자 kcs123@onnuri.org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권용갑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부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박범식 팀장(010-5225-1519)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팔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5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워

이브 주일 14: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4:00 Peace 301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00 301호 / 네팔어 주일 9: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입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2:15~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재)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동희 간사(070-4464-8119)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시간: 매주 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를

**온누리가족 나무동생(공원모역) 잔여**

**기 계약자 모집**

자격조건: 온누리교회 등록교인만 계약이

가능(계약자의 가족까지 안지)

동산위치: (재)충효공원(강원도 원주시 문

막읍 공촌리 산 152-2)

사용안내: 매장방식의 납골과, 봉분에 의한

매장

잔여수량(기): 80기

문의: 02-3215-3178-9

**IT인들을 위한 세미나**

일시: 7월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가로수위실 (강남구 압구정로 10

길 43 엘모아빌 빌딩 지하 2층)

강사: 31일 김만희(축복의 사람)

문의: 02-3215-3651

**서빙고 한식당팀 조리원 직원 모집**

모집: 한식당 배식, 주방정리, 조리사

보조 등

자격: 경력무관(단체급식 및 동종업계

경력자 우대)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신앙

간증문 1부(선택)

접수: ohddong5@onnuri.org

문의: 오종환(02-3215-3101)

**CMN 캄보디아 아웃리치**

일시: 9월 20일(18:40 출발)~27일(6:35

도착)

사역: 캄보디아 프놈펜 헤브론병원, 캄푹

쪼아독교회

지원: 소아과, 내과, 가정의학과, 치과,

약사, 간호사

비용: 50만원(항공비 별도)

문의: 김경아 간사(010-8983-3520)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양재**

02.570.7430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월요QT예배**

매주 월요일 오후 7:30 화평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목요찬양예배**

일시: 매주 목요일 오후 7:50 기쁨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2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렐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어진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Jean-Martin Wehrey

일시: 주일 오후 2:00

장소: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 안동 도곡교회 편

7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 30분

진행 : 찬양사역자 박요한, 개그맨 이정규

무속신앙이 뿌리 깊은 산골에 위치한 **안동 도곡교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대를 이어 교회를 지켜온  
조현선 목사 부부와 함께 산골 복음화의 꿈을 나눕니다.

